

教育大學 教授의 役割



釜山敎大 學長 李 珪 範

I. 머리말

敎師敎育 특히 初等敎師敎育을 담당하는 敎育大學 敎授의 役割을 논의하는 목적은 敎育政策者 및 敎育行政家에게는 敎師敎育者인 교수 역할의 重要性에 따른 政策的 配慮와 行政的 支援을 특별히 희망하기 위함에 있고, 교사교육자인 敎授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고 自己 役割 遂行에 대하여 再確認하는 機會를 삼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社會的으로 初等敎師 敎育者인 교수의 役割, 즉 國家社會 發展을 위한 國民 基礎敎育을 담당할 敎師를 길러 내는 敎授의 重要性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는 資料를 제공하는 데도 있다. 그리고 敎育研究 또는 敎師敎育 研究機關에서는 敎師敎育을 담당하는 교수의 역할과 役割 遂行에 관한 實證的 研究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情報의 交換이 촉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이다.

II. 敎師敎育者인 敎授의 重要性

敎師敎育의 所産인 敎師들이 그 나라의 敎育의 質을 좌우한다고 하면 그 교사를 교육하는 敎授의 資質이 한 나라 敎育의 장래를 決定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敎師敎育을 담당하는 敎授의 重要性에 관해 金鍾喆敎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씨앗의 씨앗 노릇을 하고 있다. 敎師敎育의 過程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要因이 작용하지만 좋은 씨앗이 있고서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은 理致로 우리는 씨앗의 重要性을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敎師敎育을 담당하는 敎授(teacher training teachers)의 重要性은 여러 각도에서 강조할 수 있을 것 같다. 敎師敎育은 다른 분야의 大學敎育과 구분되는 獨自性을 주장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모든 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한 敎育이 그러하겠지만 敎師敎育만큼 獨自性과 秀越性을 통하여 그 專門性 確立을 요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시 말하면 敎師敎育者인 敎授 역시 專攻分野의 學者로서 그 영역의 學問研究에 대한 秀越性을 발휘하여야 한다. 卓越한 學問的 理論과 그 適用에 관한 研究는 물론 그 學問과 관련된 敎科敎育의 研究 없이는 교수의 役割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敎師 후보생의 敎職的 資質에 따른 人格形成 敎育에 垂範者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初等敎師候補生들에게 敎職의 價値와 重要性을 인식시키고 敎職의 倫理를 體質化하도록 動機를 강화하고, 信念을 고취하며 理論과 實踐의 兩面에서

率先垂範할 수 있어야 한다.

教師가 弟子를 사랑하고 個性을 존중하며 나라와 民族을 사랑하고 國家社會를 위하여 봉사하는 精神을 갖는 것이나, 부단한 自己向上과 自己更新을 위한 研鑽과 研究를 게을리 하지 않고 바람직한 敎職의 成長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전적으로 敎授에게만 달려 있다고 단정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敎授로부터 배우며 不知不識間에 內面的 動機化와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敎師敎育을 담당한 敎授의 位置는 매우 중요하며 어느 대학 敎授와도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專門性和 秀越性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Ⅲ. 敎師敎育 擔當者인 敎授의 役割

敎師敎育을 담당하는 敎授의 役割을 學問의 여러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고, 또한 교사의 職前敎育과 現職敎育의 兩面에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敎授(初等敎師를 교육하는 敎授)의 基本的 役割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는 文化的 代行者이며 價値判斷의 權威者 역할을 한다.

文化가 보존되거나 전승된다는 것은 어떤 學習이 있어야 보존되고 전승되는 것이다. 數千年 전의 文化, 信念, 思考, 信仰, 感情 등이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것은 人間의 學習能力으로 인한 것이다.

敎育이 制度化되고 現代에 와서는 國家的 事業의 형태로 體系化되면서 文化的 學習과 文化能力의 啓發도 制度化되고 體系화된 셈이다. 敎授는 바로 이러한 制度的 敎育에서 ‘文化的 代行者(cultural agency)’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이 나라의 成人世代를 대신하여 어떤 價値基準에 따라서 文化를 選擇의으로 조직하고 敎師候補生에게 이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眼目を 제공하며, 그들의 삶을 특징짓는 文化創造의 能力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교수는 眞·善·美 등을 비롯한 價値의 判斷에 있어서 권위 있는 助言者로서의 역할을 한다. 人間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크고 작은 價値判斷의 行爲와 함께 영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價値의 基準이 언제나 명백하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저마다의 價値觀이 정연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現代人은 價値混亂의 와중에서 분방하는 생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한 人間이 自律의 人格體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의미 있게 영위하게 하는 價値觀이 획득되었거나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교수는 바로 이러한 의미의 價値觀 혹은 價値基準을 성립시켜 人間靈魂을 한 人格體로 성장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價値觀이나 價値基準을 敎師 候補者에게 심는 權威者로서가 아니라 自律의 價値觀의 형성을 도와 주는 권위자로서의 役割을 한다.

여기서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敎授의 資質로서 요구되는 條件들과 그 敎授를 가르치는 敎授의 자질로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같은 성격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李敦熙敎授는 ‘期待되는 敎師像’에서 그와 같은 資質(役割)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수는 學者이면서 敎科敎育者의 역할을 한다.

敎育大學 교수 역시 學問研究에 있어서 탁월한 理論과 그 適用能力이 없이는 敎授의 役割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특히 金鍾喆敎授는 “순수한 理論의 연구뿐만 아니라 理論과 實踐의 架橋를 위한 研究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學生(敎師候補者)들로 하여금 研究하는 方法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敎育大學은 初等敎師 養成을 목적으로 한 特殊大學이다. 따라서 초등교육의 理論과 實際에 조예가 깊은 專門家가 주축을 이루는 대학이며 이것이 교육대학의 特性이다. 그러므로 敎育大學 敎授는 特定 專攻 분야의 學者로서 그 분야의 研究는 물론 敎育學에 관한 연구도 함께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대학의 敎育課程에서 다루는 어떠한 內容도 모두가 敎師敎育 目標과 직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敎科敎育 담당 敎授는 전공한 學問(科學) 內容을 敎材로 선택하여 敎科의 특수한 體系로 再構成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자기가 전공한 學問의 領域의 知識을 바람직한 人間變化를 위한 敎科敎育學으로 개발하는 학자의 役割을 해야

한다.

敎科와 科學은 學習對象은 같으나 目的은 다르다. 敎科란 科學을 敎材로 하여 만든 敎育學의 一領域이다. 그러므로 初等敎科敎育을 담당하는 敎授에게 요구되는 知識은 결코 어느 學者의 著作으로서 요구되는 지식에 비추어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種類의 지식이다. 學校에서 가르쳐야 할 만큼 알 價値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알 價値가 있는가, 또는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가에 대한 文化로서의 敎科에 대한 內容을 選擇 組織하여 어떠한 方法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고 지도하는 특수한 專門家의 役割을 한다. 그러므로 敎育大學 敎授는 敎科敎育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한, 主眼을 불허하는 權威者인 동시에 初等 敎科敎育 專門家이다.

세째, 敎수는 道德的 倫理的 人間形成을 위한 役割遂行者이다.

敎師가 되기 전에 人間이 되어야 한다. 吳天錫博士는 理想의인 敎師像은 經書를 가르치는 經師란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人師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래전에 來韓했던 美國의 敎育哲學者 Theodore Brameld博士는 道德의 힘의 源泉으로서의 敎育의 役割을 강조하면서 敎育이란 본래 無道德的(amoral)인 知識이나 自然의 에너지를 道德的 目的을 위해 驅使할 줄 아는 人間能力을 開發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高潮되고 있는 全人敎育의 實踐을 위해서나 敎權伸張의 측면에서 다같이 해당되는 점이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價値觀이 多元化되고 급격히 變化되어 때로는 混亂의 樣相을 露呈하고 있는 現實, 그리고 敎師敎育의 大量敎育의 환경 속에서 敎職의 人格敎育을 위한 과제는 敎師敎育을 담당하는 敎授에게 매우 어려운 役割을 부여하고 있다.

敎育大學 敎授는 敎師候補者의 人格敎育에 있어서 언제나 合理的 說得(exhortation), 率先垂範(example), 體驗 또는 修練(experience)의 方法 등을 조차시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最善의 노력을 다하는 데 相當한 役割을 한다. 또한 敎育大學 敎師敎育 과정에는 知識의 評價 못지 않게 態度의 評價를 중시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個

別的 相談 및 指導를 위해 敎育大學 敎授는 카운셀러의 專門的 秀越性을 발휘한다. 특히 敎수는 敎師候補者에게 同一視의 對象(indentification figure)으로서의 役割을 한다. 이는 敎授의 높은 人格的, 人性的 誘引性을 의미한다. 이것은 敎수의 信念體系나 行動의 準據에 대한 學習者(敎사 후보생)의 共感度 및 誘引性이며 또한 여기서 敎수의 道德的·倫理的 權威가 포함된다.

네째, 敎수는 敎育行政 參與와 現場敎育의 指導역할을 한다.

敎育대학 敎수는 市·道敎育委員會 및 文敎行政의 初等敎育 政策에 參與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敎育研究機關의 研究員으로서도 활약한다. 특히 敎員再敎育은 물론 現場敎育에도 폭 넓게 參與한다. 研究學校 및 示範學校의 指導助言은 물론 現場敎育 研究의 諮問과 指導 役割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敎育의 專門性이 요구됨에 따라 그 參與의 範圍도 넓어지고 있다. 敎育行政 및 現場敎育 改善을 위한 情報提供과 政策判斷을 위한 助言 등에 직접 간접으로 參與하고 봉사하는 役割을 한다.

IV. 맺는 말

敎師敎育의 改善을 위한 課題는 많다. 그 가운데 敎師敎育 담당 敎授의 役割知覺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을 거듭 확인하고 그 동안 우리들(敎育大學의 同役者)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自我概念에 너무 소홀했음을 反省하면서 새로운 奮發을 기약하고자 한다.

初等敎師 敎育을 담당하는 敎授는 國家와 民族의 장래를 결정짓는 ‘스승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矜持와 自負心을 가질 것은 물론 어떠한 어려운 條件 속에서도 歷史的 召命意識을 가지고 自己의 役割을 다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敎育大學이 敎授에 대한 役割認識, 行政的 支援, 補償體制 등이 낮게 [평가되어 敎授의 役割 遂行을 저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敎育大學의 특수한 목적에 비추어 敎授 役割의 特殊的 秀越性을 再確認하고 他大學에서 아무리 有能한 敎수라도 敎育大學의 敎授는 될 수 없다고 自尊하자. *